



즉시 배포용: 2019 년 1 월 2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사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고 보고된 페이스타임(FACETIME) 버그에  
관하여 소비자 경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신자가 전화를 받거나 거부하기도 전에 사용자가 수신자의 오디오 및 비디오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된 애플(Apple)의 페이스타임(FaceTime) 앱 버그에 관하여 뉴욕 주민에게 경고하는 소비자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페이스타임(FaceTime) 사용자에게 애플(Apple)이 문제를 고칠 때까지 임시로 앱을 비활성화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스타임(FaceTime) 버그는 뉴욕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커다란 사생활 침해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소비자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버그가 비양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걱정됩니다. 이번 버그를 고려하여 저는 뉴욕 주민들께 수정이 나올 때까지 페이스타임(FaceTime) 앱을 비활성화하실 것을 권장하며 애플(Apple)이 하루 빨리 수정본을 배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디어 보고에 따르면 페이스타임(FaceTime) 버그는 iOS 12.1 이상을 사용하는 OS 장치에 존재합니다. 사용자는 수정본이 배포될 때까지 페이스타임(FaceTime)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앱을 비활성화하려면 설정을 열고 페이스타임(FaceTime)을 선택하여 버튼을 끄기로 바꾸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